전설의 해커, 벤처의 전설이 되다

IT 피플
아블라컴퍼니 대표 노정석

해킹에 빠져 학사경고도 여러번 받아
성공과 실패…국내 첫 구글 파트너로
취미로 한 레이싱, 프로레이서 활동도
"벤처, 운이 찾아올때 버틸 줄 알아야"



'전설의 해커'에서 벤처 업계의 롤모델이 된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 그는 성공적인 벤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언젠가 찾아올 운을 기다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아블라컴퍼니

요즘 IT계는 '제2의 벤처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이런 열기 속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창업을 네 번째 하는 벤처 사업가가 있다. 노정석(36) 아블라컴퍼니 대표. 벤처업계에서 그는 후배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 중 한 명이다.

노 대표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카이스트 재학 시절에는 '전설의 해커'로 명성(?)을 떨쳤고, 한때는 자동차 경주에 심취해 프로 레이서 자격증까지 땄다. 또한 SK텔레콤에서 윤송이 박사와 함께 '1mm 서비스'를 개발했고, 국내에서 구글의 첫 기업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카이스트 시절, 포항공대 '해킹 사건'

- 첫 창업이 대학생 때다.

"카이스트 3학년 때 선배 제안으로 해킹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보안 업체(인젠) 창업에 동참했다."

- 해킹 기술이라면 혹시 재학 시절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노정석 대표를 포함한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 학생 일부가 포항공대 전기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의 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 90년대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 '쿠스'와 포항공대의 해킹 동아리 '플러스' 사이에 벌어졌던 일명 '사과전쟁'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회자된다.)

"맞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선배의 제안을 받은 것이다."

- 원래 해킹에 관심이 있었나.

"사건이 있던 1996년만 해도 '해킹'이란 말 자체가 낯설던 때다.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2학년까지 컴퓨터에 푹 빠져 살았다. 학사경고도 여러 번 받았다. 해킹을 할 때는 아무 생각없던 스무살이었다. 권력 우위가 생기는 해킹에 재미를 느꼈다. 말 그대로 문제아였다."

- 첫 창업인 인젠은 코스닥 상장도 하고 꽤 잘 나갔다. 왜 나왔나.

"상장을 하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 계속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하고 싶었고 회사를 직접 만들고 싶었다. 벤처 붐이 일던 때였고 직전 회사도 잘나갔기 때문에 의욕이 컸다."

- 두 번째 회사 젠터스는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무엇이 문제였나.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인젠에서 나는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닌 주변의 도움으로 성공을 맛봤다. 기술만 아는 '헛똑똑이'였을 뿐, 회사를 경영하고 키운 것은 모두 선배의 몫이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겸손해졌다."

- 그후 SK텔레콤에 입사했는데 창업 포기 선언을 한 것인가.

"아니다.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보안과 같은 기술 연관 사업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에 욕심이 났다.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이 됐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다."

- 태터앤컴퍼니가 그 결실인가.

"태터앤컴퍼니는 오픈소스 기반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주변에서 모두 안된다고 했다. '사업 센스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대변해주는 접점을 만들면 기회는 온다고 믿었다."

- 태터앤컴퍼니는 국내 벤처 중 처음으로 구글에 인수됐다.

"다음에 제공한 티스토리 서비스는 코리안 클릭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구글이 그때 국내시장에 막 진출했다. 네이버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구글은 검색 기술은 좋지만 콘텐츠가 부족했다. 우리 서비스는 국내 포털의 바깥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구글로선 탐이 났을 것이다."

●프로 레이서, 새로운 도전은 나의 활력소

- 구글 시절은 어떠했나.

"생각의 크기가 다르고 스케일도 달랐다. 글로벌에 대한 압축된 경험을 했다. 2년 가까이 다니면서 10년 같은 경험을 했다. 꿈에 그리던 실리콘 밸리도 직접 가봤다. 우주의 중심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성공에 대한 크기까지 달라지더라."

-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레이싱을 즐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가.

"학교 다닐 때부터 차를 좋아했다. 카이스트에서 차 좀 탄다는 친구들이 모인 '한마음 운전자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우연찮게 레이싱카 엔진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을 알아 자연스럽게 선수로 뛰게 됐다. 아마추어 시절 다섯 번 출전해 네 번 우승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장모의 만류도 있고 아이도 생겨 자연스레 그만두게 됐다."

●"벤처, 운 찾아올 때까지 버틸 신념이 중요"

- 아블라컴퍼니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

"우리 회사는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을 혁신한다',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 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전국 2만7000개의 레스토랑을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포잉'과 한국적인 문화를 세계화 한 새로운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픽쏘'(가제)가 바로 그러한 서비스다."

- 벤처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신념의 방향성과 무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 시절 멘토였던 정기현 안드로이드 프로덕트 매니저(PM)이 '성공의 요소는 자본이나 운이 아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줬다. 나도 회사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운이 올 때까지 신념이라는 구간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인터뷰 전문은 스포츠동아 홈페이지(http://sports.dong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노정석 프로필 1976년 전북 전주 출생. 전북 과학고,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과 졸업. 1997년 인젠 창업. 2002년 젠터스 창업. 2004년부터 2005년까지 SK텔레콤 CI사업본부 근무. 윤송이 박사팀에서 '1mm' 서비스 개발. 2005년 태터앤컴퍼니 창업. 2008년 구글코리아 PM(프로덕트 매니저). 2010년 아블라컴퍼니 창업.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차세대 광고 인재 다 모여라"
이노션 멘토링 코스 시즌2 대학생 40명 선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차세대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선발해 재능을 기부하는 '이노션 멘토링 코스(INNOCEAN Mentoring Course·이하 IMC)' 시즌2를 실시한다.

IMC는 차세대 광고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학생을 선발한 뒤 광고기획, 마케팅 전문가와 팀을 이뤄 광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노션은 광고에 대한 열정을 지닌 4년제 대학 2~3학년을 대상으로 7일부터 24일까지 서류신청을 받은 뒤 면접을 거쳐 약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8주간 멘토 스쿨 프로그램인 'IMC 시즌2'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는 이노션의 광고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로부터 1:1 교육, 광고이론 및 실무에 관한 특강을 받게 되며 과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이노션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innocean)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연예	백재현 "잘생긴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컴백 f(x), '미친 미모' 크리스탈 티저 이미지 공개
	수지 비치패션, 한 뼘 길이 핫팬츠도 완벽 소화
스포츠	김연아 '명예훼손' 고소에 황상민 "본질을 무시"
	'5G 연속 안타' 추신수, 적시타에 호수비로 V도우미
	'홈런 선두' 이대호, 추격자가 달려온다
사회	가출 10대女 4명중 1명 성매매 경험
	'자살 고교생' 투신직전 가해학생 호출로 고민
	"성인화보 안봤다" 휴대폰결제 항의했더니
경제	불황의 그림자… 2년 만에 휴지 꺼내든 홈쇼핑
	대형마트의 꼼수…의무휴무제 무색
	"눈 뜨고 당했다"…값싼 유혹 '쇼핑몰 피싱' 사기
생활 문화	'넝굴당' 방이숙의 '원마일 웨어룩' 따라잡기
	'거지같다' 부산말로 하면 "꼴베이? 베트남어 아냐"
	살 빼려면 기온 낮을 때 운동하라

인기 동영상
공차는 코끼리











